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유통 여전

5년간 업자 66% 형사입건 중국산, 국산으로 속여 판매 경기도가 단속처분 최다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 업체가 고발되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 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상북도(1,726개소), 전라남도(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

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체별 단속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외국 농산물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54% (10,449개소)였고, 식육판매업소 11% (2,154개소), 가공업체 9.3% (1,824개소), 수퍼 3.7% (718개소)이었다.

김중희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벌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였음에도, 여전히 4천여 개 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농축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음식점 등에 적극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하여 원산지 둔갑 판매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초월회 회동, 한반도 평화 국회 역할 '공감대'

여야5당대표, 방법론엔 이견

여야 5당 대표가 1일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된 선언의 비준동의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역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보수여당은 방법론에 있어 '속도조절'을 언급하는 등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장에서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초월회'는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초 각 당의 이념을 초월해서 만나자는 뜻으로, 지난달 5일 첫 회동을 통해 이어졌다.

문화상 의장은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월회)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역사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모임이 계속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 의제는 남북 국회회담과 선거제 문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남북 국회회담의 경우) 11월 중으로 하고, 인원은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정도로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가서 남북 국회회담을 하자는 의장님의 뜻을 전달했다"며 "그 결과 좋은 화답이 왔고, 국회회담이 이뤄져서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화됐는데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장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5당 대표 오찬(초월회)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이 5당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계가 대립에서 평화공존 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국회와 각 정당도 시각을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준 위원장도 일단 "남북 문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국회회담과 비준문제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평화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전할 말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 역시 "남북평화는 정

말 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평화와 비핵화는 풀이킬 수 없는 길이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기다릴 건 기다리고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이정미 대표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의정단체 김병준 위원장, 손학규 대표가 평양에서 함께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단 정부에서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회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초당적 협력을 언젠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미 대표도 "각 당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는 본심은 다 같다고 본다"며 "다만 방법의 차이를 내놓고 있는데 그건 가만히 서서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단 길을 걸어야 한다. 그 점에서 첫 번째 발자국을 내놓는 게 남북 국회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한 두 당 대표가 꼭 함께 하면 비준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뉴시스

"심재철, 靑 기밀자료로 빼돌려"

홍영표, 반국가행위 비판 '국가안보 위협 중대적 범죄'



범죄가 정상적 의정활동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 "분명한 반국가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잘못된 게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국가안보에 치명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며 "대표적으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의 거래 내역, 청와대 식자재 공급 업체, 해전 항공기 구입 내역, 재외공관 안전비 지출 내역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자료다. 경호처 통신장비 업체 정보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신변 보호 위한 계획을 통째로 해킹당할 수도 있다. 중대적

범죄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지만 바라는 세력이 한국당이다. 정략적 목적을 위해 서슴없이 전쟁 공포를 이용하고 전쟁 위협에 빠뜨린 게 한국당의 전진"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한국당은 여전히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회 보호 이권을 염포하고 있다"면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뽀니를 그만두고 국정운영,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국회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지만 바라는 세력이 한국당이다. 정략적 목적을 위해 서슴없이 전쟁 공포를 이용하고 전쟁 위협에 빠뜨린 게 한국당의 전진"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한국당은 여전히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회 보호 이권을 염포하고 있다"면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뽀니를 그만두고 국정운영,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일본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벤치마킹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해재난대비와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벤치마킹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 중인 행정자치위원회(국주영은 위원장)가 일본의 선진 재난대해 대응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수 첫째 날인 9월 28일, '오사카부 이바라키시' 사회복지협회를 방문해 대형 재난재해 발생시 자원봉사시스템을 확인했다.

이어 9월 29일에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친자연적 예술적 외형으로 변모시켜 친환경이미지로 개선한

마이시마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 지역의 도시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쓰나미 다카시오 스테이션을 찾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인 거대 수문과 차단벽 등 오사카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둘러봤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내실 있는 정책 연수를 위해 의원은 물론 관련 직원들마다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연수기간 내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연수내용을 복기하며 전북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전 전북선수단 격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일 제99회 전국체전 결단식이 열리는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전북 선수단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참석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회를 준비한 체육회 관계자

와 선수들을 만나 "그 동안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해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체육인들과 아름다운 승부를 펼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달라"고 격려하며 대회 기간 중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